

日本社会福祉学会会員 自由発表

農村部における在宅一人暮らし高齢者の生活とコミュニティ資源¹⁾

青山泰子(Yasuko AOYAMA, 北海道大学)

翻譯及び通譯：LEE, Hyun-Kyun(北海道大学 博士課程)

はじめに

周知の通り、日本では急速に高齢化が進んでおり、高齢化率は年々増加している。総務省統計局による平成17年11月確定値 (<http://www.stat.go.jp/data/jinsui/tsuki/index.htm>) によると、日本における総人口に占める65歳以上人口の割合は20.1% (75歳以上は9.1%) であった。同時期、0～14歳までの年少人口は13.7%である。高齢化が進むということは、総人口中の高齢者層の割合が増加するということを意味しており、社会は政策的にその人口構成に適合的な対応を求められる。これは高齢者福祉分野に限ったことではないし、この点に関しては日本も韓国も同じであろう。

本研究は、日本国内でも特に高齢化の進んだ農村部を調査対象地とし、そのコミュニティ資源をいかに活用して高齢化に対応していくのか、国内で同様な事情を抱える他の地域や、今後同様に高齢化への対応を求められる韓国をはじめ他のアジアの国々で応用しうる事例として、考察するものである。

1. 研究の目的

本研究で事例として紹介するのは、北海道にある浜益という小さな村である。北海道は、日本で最も北に位置しており、四季の変化がはっきりしていて、冬は雪が降りとても寒い。したがって、冬期間の雪への対策は、高齢者の生活を支援する上で重要な施策の一つになる。この北海道でも、やはり高齢化は進行しており、その高齢化率は2005年には20.9%であった。浜益村は、この北海道の中でも、最も高齢化の進んだ農村部である²⁾。2005年3月現在の浜益村の総人口は2114人で、そのうち65歳以上が892人であった。したがって高齢化率は42.2%にもなる。

農村部に居住する高齢者は、特に身体的な自立度の高い高齢者の場合、第一次産業に現役で従事していたり、直接収入には結びつかなくとも日中自宅近くの畑に出かけていたりなど、都市部や市街地に居住する高齢者の生活と一括りにはできない生活形態をとっていることが多い。本研究は、

高齢化率の高い農村部に居住する一人暮らし高齢者の生活に着目する。一人暮らしの高齢者は、自宅で何かトラブルが起きてもすぐに対応できる者が同居していないので、自助努力の範囲で解決可能な場合を除いては、公的支援を含めた他者との相互作用が不可欠になる。近年では、孤独死の問題もある。つまり在宅の一人暮らし高齢者は、危険な状況に陥りやすい。そこで本研究では、在宅一人暮らし高齢者の個別の生活状況に有効なコミュニティ資源を検討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現状を分析し、問題点を析出するとともに、その社会的対応について展望する。また独自のコミュニティ資源がある場合、近年の市町村合併の流れの中で、資源としての機能維持という観点から、それがどのような影響を受けるのかについても併せて検討する。

2. 研究の視点と方法

本研究のキーワードの一つは、コミュニティ資源である。高齢者の個別状況によって生じる「必要」や、地域社会の歴史的背景に基づくようなもう少しマクロな高齢者福祉的課題に対して、コミュニティはどのように応えていくことが可能であるのか。その課題や必要に応じうるコミュニティ資源があるとすれば、高齢化が進んだ農村部の高齢者の生活に、それがうまく活かされるのかどうか。そしてそれはどのような条件の時に可能であるのか。

コミュニティ資源について議論する場合、福祉施設数や病床数などの量的側面に関しては、人口規模や要介護高齢者比率などを加味して比較的包括的な議論が可能であろう。しかし、高齢者の日常生活に密接に関わることでその生活を支える存在に着目するような、質的な側面の議論の場合、まずは高齢者の個別状況を把握する必要があり、多くの場合 **Case Study** 的にミクロな事例を積み重ねる作業を要する。

本研究は、コミュニティ資源の中でも、とりわけ人的資源 (**Human Resources**) に着目する。在宅一人暮らし高齢者が何らかの支援を必要とする場合、それは自分以外の他者との関わりなしにはその生活の維持や改善は成し得ないのであり、その他者の存在は、公私の分類の別を取り払うならば、まさに人的資源 (**Human Resources**) と表現しうるものである。コミュニティ資源のうち、福祉施設や医療施設などのハード資源は、地域社会の中に簡単に増やすことは難しい。しかし人的資源

(**Human Resources**) については、小規模なコミュニティでも確保する余地はあるし、場合によっては、コミュニティが持っていた潜在的な人的資源を顕在化させたり、あるいはより活性化させたりする方向で議論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と考えられるからである。

そこで、高齢化率が40%を超える小規模な農村を調査地として、そこに居住する在宅一人暮らし高齢者に対して、全数調査を実施した。調査期間は2005年8月～11月までで、高齢者宅に個別訪問面接調査を実施している。トピックとして、日常の生活状況、地元の福祉・医療資源に対する認識、また密接なつながりのある人物がわかるように半構造化インタビュー調査を行った。また、保健師、福祉施設職員、社会福祉協議会など、高齢者と直接関わる頻度の高い方々、福祉サービス供給に携わる方々には、調査協力をお願いすると同時にインタビュー調査を実施した。

3. 調査結果

調査期間中で、住民基本台帳に基づく浜益村の在宅一人暮らし高齢者は、全部で212人であった。そのうちインタビュー調査ができたのは、94人である。それ以外の高齢者の内訳は、以下の通りである。入院中の者、一時的に高齢者福祉施設で暮らしている者、調査前に家族と同居を始めていた者、長期に家を留守にしている者、そしてインタビュー調査を受けたくなかった者である。

2005年8月現在、社会福祉協議会が供給する福祉サービスには以下のものがある。配食サービス、入浴サービス、理美容サービス、除雪サービス、それに本稿で「生きがづくり」と表現する、施設に通って趣味活動などを行うものである。これら福祉サービスに対する、高齢者の認知度と利用経験については、以下の表の通りである。

表 福祉サービスに対する認知数と利用経験

福祉サービス名	知っていた(人)	利用経験有り(人)
配食サービス	67	14
入浴サービス	81	41
理美容サービス	31	0
除雪サービス	69	32
生きがづくり	65	22

福祉サービスについての認知度は総じて高いが、サービスの種類によっては内容に関する理解の程度に差がある。配食サービスは、ボランティアが施設でお弁当を料理して、毎日高齢者宅に夕食として届けるサービスである。現在、ボランティアが不足気味であることが問題である。浜益村には温泉施設が1箇所あり、入浴サービスはその温泉への送迎付きサービスである。これは認知度も高く、また人気がある。市町村合併によって入浴サービスの存続があやぶまれたが、2005年11月現在においては、従来どおり運営されていた。理美容サービスについては、認知度が相対的に低く、

利用は全くされていない。除雪サービスは、北国に住む高齢者にとっては、とても重要なサービスの一つである。除雪は、高齢者にとって危険を伴う作業であると同時に、かなりの重労働である。インタビュー調査の結果、現在利用していない高齢者も、将来的な不安から、除雪サービスに対する期待が相対的に高かった。

在宅一人暮らし高齢者の多くは、それぞれ独自の歴史的背景を持つ行政区内を中心として、日常的に行き来する友人、近隣住民の存在を持っていた。特にそこに居住する高齢者にとって、近隣住民とのかかわりは、親しさの程度の議論とは別に、日常的に必要なものとなっていることが多い。調査対象者が一人暮らしであるため必然的に同居家族はいないが、年に数度の家族からの訪問や、比較的頻繁な電話のやりとりなど、家族との交流機会は保たれているケースが多かった。

高齢者の健康に対する関心は総じて高い。また日中出かけていることが多く、自宅にこもりがちな一人暮らし高齢者は少ない。保健師は、健康教室の実施などで各行政区を訪問する機会を確保しており、村内の高齢者の様子を個別に把握している。また一人暮らし高齢者の側からも、個別状況に関わらずに、保健師の存在は村内全域においてよく知られていた。

4. 考察

浜益村の在宅一人暮らし高齢者は、現状として福祉サービスの利用経験が豊富だとは言えない。しかしそれは福祉サービスに関心がないということの意味しているのではなく、在宅の高齢者の現状として、その「必要」がないと考える方が妥当であろう。とはいえ、福祉サービスを現在利用している高齢者にとっては、身体的あるいは物質的な援助供給源の一つ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く、その存在は、農村部の高齢者にも有効な面である。ただし、その認識の程度はサービスによって差があり、情報の定着のさせ方には工夫の余地があるといえるだろう。また、サービスの供給方法がボランティアの存在に依存している場合、供給者の恒常的な確保が課題になってくる。

保健師は、頻繁に交流する友人の有無や医療機関への通院の必要性の有無など、高齢者の個別状況に関わらずに、共通してその存在が高齢者によく知られていた。高齢者にとって、日常行き来する友人や近隣住民は、物質的にも精神的にも貴重な存在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く、保健師が全ての高齢者に共通する公的な存在であるとすれば、友人や近隣住民はあくまで個別の私的な存在である。言い換えると、在宅高齢者にとって、様々な福祉・保健制度に基づいて現れる公的な存在はフォー

マルな人的資源であり、長年の人間関係の中で培われた私的な存在はインフォーマルな人的資源であるといえるだろう。

5. 結論

福祉サービスは、都市部や農村部などの人口規模の違いに関わらず、在宅一人暮らし高齢者にとっての福祉資源の一つではある。ただしサービスの実施形態やその有効性は、高齢者の個別状況や地域事情に左右される側面が少なからずある。人口規模の小さな農村部の中でも、行政区ごとに歴史的な事情が異なり、行政区単位の凝集性の違いを考えざるを得ないこともある。それが見慣れない福祉サービスに対して、高齢者の受け入れの態度に反映することもある。したがって、高齢者の個別状況によって生じる「必要」や、あるいは地域社会のよりマクロな高齢者福祉的課題に対して、それに精通しており、かつ高齢者との接点を確保しやすい存在が、貴重なコミュニティ資源になりうる。これを人的資源として考えると、フォーマルな存在あるいはインフォーマルな存在ともに、両者の比重の適否は個別状況に左右されるが、その問題状況の把握をだれがするのかという点で、家族以外では、村内に住む高齢者に共通の接点を持つ公的な存在が、その貴重な資源の一つになりうる。特に、インフォーマルな人的資源を自助努力の範囲で確保できない高齢者にとっては、身近に状況をよく知る存在を確保しうることになる。したがって、保健師に限らず、こうした存在を住民の中から確保することは、一つの有効な方法といえるだろう。

6. 課題と今後の展望

調査地となった村には温泉があり、それが全ての住民に共通したコミュニティ資源の一つであった。一つのコミュニティが保持する独自の資源を活かしたサービスは、その独自性ゆえに、いずれかの市町村に合併されるとき、その存続があやうくなることがある。調査地の入浴サービスは調査時点においては存続したが、これも将来にわたって確定されたものではない。コミュニティ独自のサービスの消滅は、それが住民の合意の基でない限り、一つの資源の損失にもなりうる。

福祉・保健サービスに関する情報提供や、その実施形態に関する議論は恒常的に必要である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しかしサービスの利用率をあげる議論よりも、そのコミュニティで起きている問題が何で、その問題の解決に有効な資源は果たして何なのか、またそれはコミュニティ内の既存の資源で対応可能であるのかどうかという点に加え、それが活用されることでどの程度の効果をあ

げることができるのかという、医療資源を含めた諸資源の効果を測る観点を課題としてあげておきたい。高齢者の状況によっては、公的な存在よりもむしろ私的な存在の方が効果的な場合もあるであろうし、あるいは地域福祉的には、保健や福祉、医療の資源のバランスの問題が根底にあるかもしれない。

在宅高齢者が抱える問題を解決しうるのは、本人と家族以外では、いずれかの領域における人的資源（Human Resources）であり、ミクロな現場における人との相互作用が不可欠なのである。

本研究が韓国をはじめ、他の多くの地域における議論に少しでも役立つことを祈っている。

¹⁾ 本研究は、平成 17 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若手研究(B), 「都市部と近郊自治体における福祉・医療資源の分配構造に関する福祉社会学的研究」（課題番号 16730281）を受けた研究成果の一部である。

²⁾ 浜益村は、2005 年 10 月 1 日より石狩市に合併され、現在は石狩市浜益区になっている。本研究は、主に合併前の旧浜益村のデータに基づいているため、本論文では「浜益村」の表記で使用するものとする。

일본사회복지학회회원 자유발표

농촌지역 재택 독거노인의 생활과 커뮤니티 자원¹

青山泰子(Yasuko AOYAMA, 北海道大学)

翻譯 및 通譯 (LEE, Hyun-Kyun, 北海道大学 博士課程)

들어가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화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의 2005 년 11 월 발표(<http://www.stat.go.jp/data/jinsui/tsuki/index.htm>)에 따르면 일본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65 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75 세 이상은 9.1%)였다. 또한 같은 시기 0~14 세까지의 연소 인구는 13.7%였다. 고령화의 진행은 총인구에서 고령자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사회는 이러한 인구 구성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고령자 복지분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이 점에 관해서는 한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내에서도 특히 고령화가 진행된 농촌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커뮤니티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고령화에 대응해 나가는지, 일본내에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타지역과, 향후 고령화에의 대응이 요구되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서 효율적으로 응용할 만한 사례를 들어 고찰하고자 한다.

1.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사례는 홋카이도에 있는 하마마스(浜益)라고 하는 작은 촌(村)이다. 홋카이도는 일본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며, 겨울은 눈이 내려 매우 춥다. 따라서 동절기 눈(雪)대책은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이다. 홋카이도에서도 역시 고령화가 진행하고 있는데, 2005 년도 고령화율은 20.9%였다. 하마마스촌은 홋카이도안에서도 가장 고령화가 진행된 농촌지역이다². 2005 년 3 월 자료에 의하면 하마마스촌의 총인구는 2,114 명으로, 이 중 65 세 이상이 892 명이다. 따라서 고령화율은 42.2%가 된다.

¹ 본 연구는 2005 년도 일본 문부과학성 연구비 보조금 젊은세대연구(B), 「도시지역과 근교 자치단체에 있어서의 복지·의료 자원의 분배 구조에 관한 복지사회학적 연구」(과제번호 16730281)의 지원을 받은 연구 성과의 일부이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특히 신체 자립 정도가 높은 고령자의 경우, 제 1 차 산업에 현역으로 종사하고 있거나 직접적인 수입으로는 연결되지 않더라도 자택 부근의 밭에 나가는 등, 도시지역이나 시가지에 거주하는 고령자와는 한데 묶을 수 없는 생활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생활에 주목한다. 독거노인은 자택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빨리 대처할 만한 사람이 동거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 지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불가결하다. 최근에는 독거노인의 고독사(孤獨死) 문제도 있다. 즉, 재택 독거노인들은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택 독거노인의 개인 생활 상황에 유효한 커뮤니티 자원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현상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식출함과 동시에, 그 사회적 대응방안에 대해서 전망하고자 한다. 또 독자적인 커뮤니티 자원이 있을 경우, 최근 시읍면(일본, 市町村)의 합병 움직임 속에 자원으로서의 기능유지(機能維持)라는 관점에서 그러한 커뮤니티 자원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 시점과 방법

본 연구의 키워드 중의 하나가 커뮤니티 자원이다. 고령자의 개별 상황에 의해서 생기는 ‘필요’나, 나아가 지역사회적 역사의적 배경에 근거하는 매크로적인 고령자 복지가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커뮤니티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 그 과제나 필요에 대응할 만한 커뮤니티 자원이 있다고 한다면, 고령화가 진행된 농촌지역 고령자들의 생활에 커뮤니티 자원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이 성립할 때 가능한 것인가?

커뮤니티 자원에 대해서 논의할 경우, 복지시설수나 병상수 등의 양적 측면에 관해서는 인구 규모나 요개호 고령자의 비율 등을 더하여 비교적 포괄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고령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그것을 서포트하는 ‘존재’에 주목하는 질적인 측면을 논의할 경우, 우선은 고령자의 개별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 Case Study 를 활용하여 미크로적인 사례를 거둬들이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² 하마마스촌은 2005 년 10 월 1 일부터 이시카리시(石狩市)에 합병되어, 현재는 이시카리시 하마마스구가 되었다. 본 연구는 합병 전 舊하마마스촌의 자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하마마스촌」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커뮤니티 자원 중에서도 특히 인적 자원(Human Resources)에 주목한다. 재택 독거노인이 어떠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자신 이외의 타자와의 상호관계 없이는 그 생활의 유지나 개선은 있을 수 없다. 또한 거기서 타자의 존재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인적자원(Human Resources)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커뮤니티 자원 가운데 복지 시설이나 의료 시설 등의 하드 자원은 지역사회에서 간단히 증가시키기 어렵다. 그러나 인적자원(Human Resources)은 소규모 커뮤니티에서도 얻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던 잠재적인 자원을 현재화(顯在化) 시키거나 혹은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화율이 40%를 넘는 소규모 농촌지역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여, 거기에 거주하는 재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기간은 2005년 8월~11월,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가택을 개별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항목으로서는 평상시의 생활 상황, 현지의 복지·의료 자원에 대한 인식,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을 알 수 있도록 반구조화 인터뷰조사를 실시했다. 또 보건사, 복지시설 직원, 사회복지협의회 등, 고령자와 직접 관계를 맺는 빈도가 높은 대상자, 복지서비스 공급에 종사하는 대상자에게는 조사 협력을 부탁하는 동시에 인터뷰조사를 실시했다.

3. 조사 결과

조사기간 중에 주민기본대장에 근거하는 하마마스촌의 재택 독거노인은 전부 212명이었다. 그 중 94명을 인터뷰 조사는데, 이 중 인터뷰 조사가 불가능했던 고령자는 다음과 같다. 입원 중인 고령자, 일시적으로 고령자 복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고령자, 조사 전에 가족과 동거하기 시작한 고령자, 장기간에 걸쳐 집을 비우고 있는 고령자, 그리고 인터뷰 조사를 받고 싶지 않은 고령자이다.

2005년 8월 현재, 사회복지협회가 공급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로는 다음과 같다. 배식 서비스, 입욕 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체질 서비스와 이른바 「사는 보람 만들기」라고 일컬어지는 시설에 다니며 취미 활동 등을 행하는 서비스이다. 이들 복지 서비스에 관한 고령자의 인지도와 이용 경험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경험

복지 서비스명	알고 있었다 (명)	이용한 적이 있다 (명)
배식 서비스	67	14
입욕 서비스	81	41
이/미용 서비스	31	0
제설 서비스	69	32
사는 보람 만들기	65	22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대체적으로 높지만,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는 내용에 관한 이해 정도의 차이가 있다. 배식 서비스는 자원봉사자가 시설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매일 재택 독거노인에게 저녁 식사로서 배달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자원봉사자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하마마스촌에는 온천 시설이 한 군데 있어서 입욕 서비스는 그 온천으로 환송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인지도도 높고 인기도 많다. 시읍면 합병에 따라 입욕 서비스의 존속이 염려되었지만, 2005년 11월 현재, 종래대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미용 서비스에 관해서는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전혀 이용되고 있지 않았다. 제설 서비스는 북쪽 지방에 사는 고령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의 하나이다. 제설 서비스는 고령자에게 있어서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임과 동시에 상당한 중노동이다. 인터뷰 조사 결과,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는 고령자도 앞으로 필요할 때에 대한 불안과 함께 제설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재택 독거노인의 상당수는 각기 독자적인 역사적 배경을 가지는 행정구역내를 중심으로, 평상시에 왕래하는 친구와 근처 이웃 주민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거기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근처 이웃 주민과의 관계는 친근함의 정도의 논의와는 별도로, 일상 생활에서 필요 불가결한 경우가 많다. 동거 가족 없이 혼자서 생활하는 조사 대상자는 1년에 몇 차례의 방문 내지는 전화 등을 이용한 대화할 기회의 확보 등, 가족과의 교류 빈도는 대체로 높았다.

고령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대체로 높다. 또 하루종일 자택에만 있기보다는 밖으로 외출하는 독거노인이 많다. 보건사는 건강 교실의 실시 등으로 각 행정구를 방문할 기회를 만들어, 마을 내 고령자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독거노인도 개별 상황에 상관없이, 보건사의 존재는 마을 전역에 걸쳐 잘 알려져 있었다.

4. 고찰

하마마스촌의 재택 독거노인은 현 상황으로 볼 때, 복지 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풍부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복지 서비스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택 독거노인의 상황으로 볼 때 그러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령자들에게는 신체적 혹은 물질적인 원조공급원의 하나임에 틀림없고, 복지 서비스의 존재는 농촌지역의 고령자에게도 유효하다. 다만, 인식의 정도에 있어서는 서비스에 따라 차이가 있고, 정보를 정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 서비스의 공급 방법이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 항시적인 공급자의 확보가 과제로 남게 된다.

보건사는 빈번히 왕래하는 친구의 유무나 의료기관으로의 통원 필요성의 유무 등, 고령자의 개별 상황과는 상관 없이, 그 존재가 고령자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고령자에게 있어서 평상시 왕래하는 친구나 근처 이웃주민은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중요한 존재임에 틀림없다. 보건사가 모든 고령자에게 공통된 공적인 존재라면, 친구나 근처 이웃주민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적인 존재이다. 즉, 재택 독거노인에게 있어서 다양한 복지·보건 제도를 근거로 나타나는 공적인 존재는 포괄한 인적자원이며, 오랜동안의 인간 관계로 형성된 사적인 존재는 인포털한 인적자원이다.

5. 결론

복지 서비스는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 등의 인구 규모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재택 독거노인에게서 복지 자원의 하나가 된다. 다만, 서비스의 실시 형태나 그 유효성은 고령자의 개별 상황이나 지역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면이 적지 않다. 인구 규모가 작은 농촌지역 안에서도 행정구별 역사적인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구 단위의 응집성의 차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복지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고령자의 태도에 반영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고령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필요」나 지역사회의 보다 매크로적인 고령자 복지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고령자와의 접점을 확보하기 쉬운 존재가 중요한 커뮤니티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를 인적자원으로 생각한다면 포괄한 존재 혹은 인포털한 존재와 함께 양자의 비중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그 문제 상황을 누가 파악하느냐 하는 점에서 볼 때, 가족 이외에는 마을 내에 사는 고령자와 공통된 접점을 가지는 공적인 존재가 중요한 자원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인포털한 인적자원을 자신의 노력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고령자에게 있어서는 가까이에서 상황을 잘 아는 존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보건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존재를 주민 가운데에서 확보하는 것은 하나의 유효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6. 향후 전망과 과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마을에는 온천이 있어서 모든 주민들에게 공통된 커뮤니티 자원이었다. 한 커뮤니티의 독자적인 자원을 살린 서비스는 그 독자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의 시읍면이 합병될 때 그 존속이 어려울지도 모른다. 조사지역의 입욕 서비스는 조사 시점에는 존속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독자적인 커뮤니티 서비스의 소멸은 주민의 합의에 의한 경우가 아닐 경우, 자원 하나를 손실할 수 있다.

복지·보건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그 실시 형태에 관한 논의가 항상 필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서비스의 이용률을 높이는 논의보다는 그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왜 발생하였는지, 그 문제의 해결에 유효한 자원은 과연 무엇인지, 또 그 문제는 커뮤니티 내의 기존에 있던 자원으로 대응 가능한지, 나아가 그것이 활용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의료자원을 포함한 각 자원의 효과를 측정하는 관점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고령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공적인 존재보다는 오히려 사적인 존재가 효과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지역 복지에 있어서는 보건과 복지, 의료 자원의 균형 문제가 근저에 있을지도 모른다.

재택 고령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본인과 가족 이외에는 다른 어떤 영역의 인적 자원(Human Resources)이며, 이는 미크로적인 현장의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불가결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많은 지역에 있어서의 논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